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이 규 미[†]

이주대학교

김 명 식

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이규미(2005)가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추출해낸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를 남녀 중학생 634명(남: 479명, 여: 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준거점수와의 상관분석 결과 준거관련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고(CFI=.993, NNFI=.985), 모형의 간명성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RMSEA=.085) 본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최종적으로 검증되었다. 연구 결과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가 학교공부(학업유능감, 학업가치), 학교친구(긍정적인 친구관계, 친구와의 상호협조성), 학교교사(교사에 대한 호감, 교사에 대한 친밀감), 학교생활(질서와 규칙준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학교적응 척도는 우울척도(CES-D)와 생활스트레스 척도와 의미 있는 부적 상관을 보여 준거관련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적응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내적 합치도)는 학교공부 .83, 학교친구 .87, 학교교사 .90, 학교생활 .85, 전체문항 .93로 '보통' 이상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본 척도의 활용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 하였다.

주요어 : 학교적응, 학교적응척도, 학교적응 구성개념, 확인적 요인분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규미, 이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Tel : 031)219-1792, E-mail : kmec@ajou.ac.kr

학교는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요소들, 즉 지적인 역량을 발달시키고 유능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며 부모 이외의 다른 어른들과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Vieno, Santinello, Pastore, & Perkins, 2007). 학교는 이러한 경험을 제공받는 장소일 뿐 아니라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 자신이 이를 수용, 적응해 가야 하는 생활과제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은 학교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학습기회를 제공받으며 이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즉 학교환경, 규칙, 분위기, 학습내용 및 학습과정, 교사와 교내 구성원, 또래들과 조화를 이루며 학습기회를 수용하고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학교적응이라는 용어로 함축될 수 있는데, 학교적응은 학생의 신분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적응의 정도로 인식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엔 학교에 적응하기 보다는 홈스쿨링이나 조기 직업교육 등 다른 진로에 관심을 보이고 성공을 거둬내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의 구체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학교적응이라는 개념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의와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학교적응에 대해 대체로 포괄적인 개념정의를 하고 측정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영역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식으로 학교적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광수란(2006)은 학교적응에 대해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

을 변화시킴으로서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 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문은식(2002), 문은식과 김중희(2002)는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학생의 외현적, 내재적 행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포괄적인 정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편 Ladd, Kochenderfer와 Coleman(1997)은 학교적응이란 학교환경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감정이며, 특히 아동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편안해 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라고 학생의 지각과 감정의 관점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김용래(1993)와 문승태(2004)는 학교상황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라는 관점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김용래(1993)는 학습자가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제반 교육적 여건을 자신의 요구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교에 관련된 제반 조건을 바르게 수용하여 학교상황에서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시도의 정도라고 정의를 했다. 문승태는 이에 대해 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 내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습자의 요구를 학교상황 내의 제반요구에 맞추어 잘 조절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문승태(2004)는 학교상황에서의 스트레스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적응이 학

생들의 일반적인 적응의 정도로 인식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이를 변인으로 하는 연구가 매우 폭넓게 행해져 왔다. 그러나 각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적응의 개념이 연구자마다 다르고 대부분 심리적으로 상관성이 있는 개념들 혹은 가설적 개념들에 의해 정의 되어 왔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고 이를 개입방법과 연결시키는 것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MIssall, 2002). 국내에서도 개인특성 및 심리적 변인, 부모 혹은 가정변인, 친구 및 교사관계, 학교생활, 학업성취도 등의 관련변인들과의 상관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거의 모든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이 이미 검증되어 왔을 정도라는 지적이 있었다(이규미, 2004). 그러나 학교적응이라는 개념에 대해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된 것이 대부분이라 각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은, 특히 상관연구의 경우 다른 변인들과 독립된 것이기 보다 이미 상관되거나 중복된 개념일 가능성도 많다.

이규미(2005)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선행 연구자들이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하위영역과 문항들을 수집하였다. 먼저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Simon-Morton와 Crump(2003)은 전반적인 학교적응, 학교 참여도, 학급풍토를 강조했고, Berndt와 Keefe(1995)은 학교적응의 구성요소로 수업활동의 긍정적인 참여, 적절한 수업 행동과 특히 방해되는 행동의 부재, 그리고 학업성취의 세 가지 측면을 중요시 여겼다. 그리고 Roeser와 Eccles(1998)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학업적응, 심리적인 적응, 학교지각 등을 제시했다. 국내 연구로서 정순례(1992)는 학교적응에 있어 학교선호, 교사선호, 학교 활동성, 학교에서 느

끼는 감정 및 영향력, 친구관계 지각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용래(1993)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을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으로 보았다. 김지혜(1998)는 수업참여도,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문제행동이 학교적응의 필수요소라고 했고, 김용래와 허남진(2003)은 학교적응이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친구, 교사, 학교환경으로 구성된다고 보고했다. 이규미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고 전문가의 문항검토와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총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38문항을 추출해 내었고, 그 상위에 4개의 차원(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38문항 전체 신뢰도는 .90이었고 4개의 차원의 신뢰도의 범위는 .77-.86, 8개 영역의 신뢰도의 범위는 .60-.82로 모두 '보통' 전후의 신뢰도를 보였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으나 모형의 간명성이 '보통'수준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의 점수들은 교사들이 평가한 부적응 지표, 성적, 출결상황, 징계유무 등의 행동준거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준거관련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이규미(2005)의 연구는 학교적응에 대한 가설적인 차원이거나 이론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타당도 검증을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규미(2005)가 구성한 우리나라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재검증해 보고, 본 척도와 청소년의 학업수행과 학업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Reynolds, 1990; Rudolph, Hammen, Burge,

Lindberg, Herzberg, & Daley, 2000) 우울과 생활 스트레스 척도와 의 상관분석을 통해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했다. 둘째, 중학생 학교 적응 척도를 중학교 2학년 학생들로만 구성된 집단에게도 적용가능한지 그 일반화의 정도를 검증하고자 했다. 셋째, 다양하고 세분화된 학교적응척도 개발을 위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교에 대해 매우 만족 한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의 5단계 척도를 통해 42.1%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36.6%가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39.9%는 학교생활에 불만이 없다고 답한 반면, 22.6%가 성적위주의 교육 때문에, 8.4%가 교육환경 때문에, 8.2%가 친구관계로 인해 학교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방 법

연구대상

수도권 대도시 2개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 634명(남 479명, 여 155명)이 이에 참여하였다. 이들에 대한 기초조사에서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는 학교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학

측정도구

학교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 타당화 작업 대상이 된 학교적응 척도의 각 차원과 영역, 그리고 문항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각 영역에 대한 정의는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여한 것이며 몇 개의 영역명은 이규미(2005)와는 달리 척도의 하위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문항내

표 1. 중학생의 학교적응 척도 구성 및 하위영역에 대한 정의

차 원	영역	정 의	문항수
학교 공부	학업유능감	학교에서의 학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고 잘 참여하고 집중함	5
	학업가치	학교공부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3
학교 친구	긍정적인 친구관계	학교에 친구가 있고 그들과 관계를 잘 하고 있으며 그들을 좋아하는 정도	5
	친구와의 상호협조성	친구와 긍정적인 교류를 하고 도움을 주고받음	5
학교 교사	교사에 대한 호감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호감을 갖고 있음	6
	교사에 대한 친밀감	교사와의 친밀한 개인적 교류가 있거나 가능성을 갖고 있음	4
학교 생활	질서와 규칙준수	학교시설을 아끼고 규칙을 잘 지키며 질서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함	7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학교를 좋아하고 학교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음	3
			총 38문항

용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친구관계-> 긍정적인 친구관계, 상호협조성->친구와의 상호협조성, 학교생활만족->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또한 2005년도 개발 당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던 것에 반해 청소년들의 중간집중 경향성을 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중간 척도를 빼고, 0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학교공부 .83, 학교친구 .87, 학교교사 .90, 학교생활 .85,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3 으로 이규미의 2005년도 논문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구체적인 척도문항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본 우울증 척도는 Randloff(1977)에 의해 개발되고 조맹제, 김계희(1993) 등이 우리 문화와 우울감정의 언어적 표현 관습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하여 타당화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총 20문항의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이었다.

생활스트레스 척도

전검구와 김교현(1991)이 제작한 스트레스 척도 중 중학교 학생들에게 적용가능한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성관계, 학업문제, 교사관계, 경제문제 영역의 총 30문항을 선별해서 구성하였다. 응답은 0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이었다.

자료분석

첫째, 학교적응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쓰이는 χ^2 검증, 표본의 영향을 덜 받는 CFI (comparative fit index),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인 NNFI (normed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사용했다. CFI와 NNF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값이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10 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둘째, 학교적응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학교적응 척도와 우울, 스트레스 척도와의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결 과

학교적응 구성개념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지표인 χ^2 검증 결과가 유의하게 나와 요인구조 모형의 귀무가설을 부정했다($\chi^2=89.23$, $p<.01$). 그러나 독립모형과 비교해 유의하게 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고(CFI=.993, NNFI=.985), 모형의 간명성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RMSEA=.085), 설문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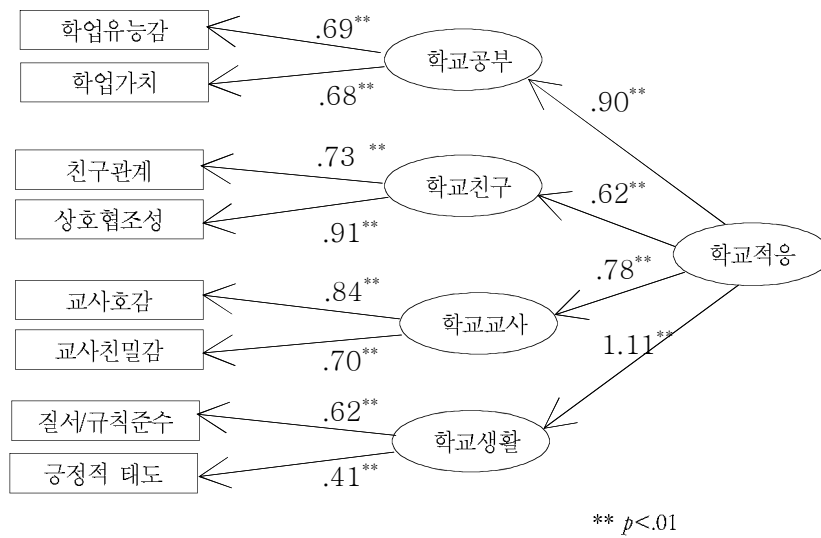


그림 1.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 모형의 요인구조.

개념에 대한 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최종적으로 검증되었다(그림 1).

중학생의 학교적응은 학교공부(standardized $\beta = .90, p < .01$), 학교친구(standardized $\beta = .62, p < .01$), 학교교사(standardized $\beta = .78, p < .01$), 기타 학교생활(standardized $\beta = 1.11, p < .01$)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 구성을 보면, 학교공부는 학업유능감(standardized $\beta = .69, p < .01$)과 학업가치(standardized $\beta = .68, p < .01$), 학교친구는 친구관계(standardized $\beta = .73, p < .01$)와 상호협조성(standardized $\beta = .91, p < .01$), 학교교사는 교사호감(standardized $\beta = .84, p < .01$)과 교사친밀감(standardized $\beta = .70, p < .01$), 학교생활은 질서/규칙준수(standardized $\beta = .63, p < .01$)와 긍정적 태도(standardized $\beta = .41, p < .01$)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요인구조의 적합도가 검증되었다(표 2).

학교적응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 검증: 학교적응과 스트레스, 우울과의 상관분석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우울 척도와 스트레스 척도 등 두 가지 관련 척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학교적응 척도의 전체 평균은 1.68로서 ‘보통’ 정도의 적응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0.83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학업 스트레스(평균: 1.33), 진로 스트레스(평균: 1.03)는 전체 평균 스트레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우

표 2.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χ^2	df	CFI	NNFI	RMSEA(90%CI)
모형	89.23**	16	.993	.985	.085(.068-.103)

** $p < .01$.

표 3. 학교적응, 스트레스, 우울간의 상관관계 (N=634)

변인들	학교 공부	학교 친구	학교 교사	학교 생활	학교적응 (전체)	친구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	진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총점)	우울 (총점)
학교공부	1										
학교친구	.44**	1									
학교교사	.47**	.40**	1								
학교생활	.58**	.47**	.56**	1							
학교적응 (전체)	.76**	.73**	.80**	.83**	1						
친구 스트레스	-.16**	-.36**	-.09*	-.13**	-.23**	1					
학업 스트레스	-.31**	-.15**	-.21**	-.22**	-.27**	.34**	1				
교사 스트레스	-.18**	-.09*	-.31**	-.21**	-.25**	.17**	.53**	1			
진로 스트레스	-.13**	-.07*	-.18**	-.13**	-.16**	.31**	.68**	.39**	1		
스트레스 (총점)	-.28**	-.23**	-.25**	-.24**	-.31**	.59**	.91**	.65**	.78**	1	
우울(총점)	-.26**	-.21**	-.19**	-.18**	-.26**	.48**	.50**	.35**	.50**	.61**	1
M(SD)	1.51 (.64)	2.08 (.61)	1.50 (.73)	1.61 (.64)	1.68 (.52)	.37 (.44)	1.33 (.75)	.61 (.56)	1.03 (.91)	.83 (.48)	9.22 (8.84)

* p<.05. ** p<.01.

울척도의 평균은 9.22로서 ‘보통’ 수준이었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공부는 학업 스트레스($r=-.31, p<.01$), 스트레스 총점($r=-.28, p<.01$), 우울($r=-.26,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학교친구는 친구 스트레스($r=-.36, p<.01$), 스트레스 총점($r=-.23, p<.01$), 우울($r=-.21,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학교교사는 교사 스트레스($r=-.31, p<.01$), 스트레스 총점($r=-.25, p<.01$), 우울점수($r=-.19,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학교생활은 스트레스 총점($r=-.24, p<.01$), 우울점수

($r=-.18,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표 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이규미(2005)가 구성한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구성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 선행연구의 대상이 아닌 다른 중학생들에게도 학교적응 척도로서 사용이 가능한지 그 일반화 정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2학년 학생 634명(남 479명, 여 155명)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학교적응 구성개념 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고, 모형의 간명성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본 중학생 학교적응 문항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 학교적응은 학교공부(학업유능감, 학업가치), 학교친구(긍정적인 친구관계, 친구와의 상호협조성), 학교교사(교사에 대한 호감, 교사에 대한 친밀감), 학교생활(질서와 규칙 준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준거 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척도와 우울 및 스트레스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적응은 우울 및 스트레스와 의미 있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본 척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하고 신뢰로운 도구임이 검증되었다.

연구결과 학교적응의 하위차원을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등으로 추출해 낸 것은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으로 학교수업, 학교규칙, 교사, 교우관계 본 임정순(1993), 김용래(1993), 권순용(2006)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가설적 정의에 입각해서 하위영역을 선정하고 관련 문항을 구성해 실시했던 기존의 연구들 중 일부가 적절한 영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무엇이 학교적응의 핵심요소 인지를 알 수 있었다. 학교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일수록 우울점수와 생활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은 유윤희(1994), 이혜선(2002), 이에승(2004), 이수경(2004), 장경문(2005)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교적응 척도가 우울과 생활스트레스 척도와 의미 있는 부적상관을 나타낸 것은 본 척도가 학생들의 전반적인 적응

상태를 연구하는데 있어 임상적인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교적응의 구성개념을 밝혀낸 이규미(2005)의 연구에 이어, 새로운 표집에 대해 이 척도에 대한 차원 및 하위영역을 확인하고 우울 및 생활스트레스 척도와 의 상관을 통해 변별 타당도까지 검증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한 학교적응척도로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구로 사용 가능하고, 학교적응 각 차원의 적응수준을 알아보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척도가 학교현장에서 학생지도를 위해, 혹은 부적응학생의 발견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용 척도로도 사용 가능할 것이지만 엄격한 통계과정을 거쳐 추출해 낸 문항들이므로 임의로 수정, 보완하거나 발췌해서 사용하면 이 척도의 상대적 장점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척도의 수정, 보완을 위한 연구는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모형 적합도가 보통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이규미(2005)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본 척도가 학교생활 내 문항들과 영역들로만 구성된 데 반해 학교적응에는 학교 외 변인이 직, 간접적으로 관련 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연구자들은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 중에서 가정 관련 변인에 대해 중요한 비중을 두고 연구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배숙진(1998)은 부모자녀관계가, 정유진(1999)은 가족원 수,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정의 월수입, 부모의 결혼상태 등 가정특성 변인이, 그리고 이해령(2000)은 가족기능이 학교적응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 한 바 있다. 또한 문은식과 김충희(2002)는 학교생활 적응에 관련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에서 부모관계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학업 동기 및 심리적 안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낸 바 있다. 이외에 Wentzel(1999)은 부모자녀관계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문화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이러한 변인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학교 내에서의 지도가 가능한 학교관련 변인들을 중심으로 학교적응의 구성개념을 밝혀낸 결과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학교적응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학교 내 적응 변인 외에 가정변인, 지역사회 변인 등도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척도를 활용하여 학교적응에 대해 평가하고자 할 때 가족관련 척도를 병행하여 조사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척도의 기본 문항이 기존 연구들로부터 생성되었으나, 학생들의 의견이나 관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제한점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적응의 개념은 기존의 연구자나 교사 등과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연구 대상자가 수도권 대도시 2개의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지방이나 학년의 중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교적응은 학업경쟁이 심한 지역의 특성이나 학교의 규율정도에 따라서도 다양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대상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는 발달상황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 1학년 학생은 친구관계가 더욱 중

요하고 고등학생은 학업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본 척도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실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간의 성별분포에 차이가 커서(남자: 479명, 여자: 155명), 남녀 간 학교적응과 스트레스, 우울의 차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적응의 상호작용과 순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실시하지 않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 척도를 사용하여 더 많은 연구결과가 제시되면 그로부터 더욱 유용한 척도가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중학생 학교적응의 하위차원과 하위영역, 그리고 문항들이 학생들의 실제 생활에서의 적응도를 밝혀낼 수 있는지, 이를 통해 학생들의 부적응 상태를 조기 발견하여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곽수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 연구*, 16(1), 1-26.
- 권순용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관련변인의 인과적 분석, *중등교육연구*, 54(3), 329-349.
- 김교현, 전경구 (1993).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 척도의 개발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97-217.

- 김용래 (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요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래, 허남진 (2003). **학습동기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제 20집, 5-24.
- 김지혜 (1998). **청소년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경희 (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 41(12), 147-168.
- 문승태 (2004).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심리적 변인이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6(2), 65-82.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발전논총**, 23(1), 153-167.
- 문은식, 김충희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배숙진 (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윤희 (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적 간의 관계분석-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89.
- 이수경 (2004).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예승 (2004). **부모의 이혼과 양육형태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학교적응**. **청소년학 연구** 11(1), 421-441.
- 이혜령 (2000).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선 (2002). **청소년의 환경적 요인 및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과모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임정순 (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경문 (2005).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통제력이 학교스트레스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2(1), 1-16.
- 정순례 (1992). **현실요법에 근거한 학습방법이 중학생의 교과 및 학교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유진 (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114, 381-399.
- Berndt, T. & Keefe, K.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 1312-1329.
- Birch, S. & Ladd, G.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Farrell, A. D., Sullivan, T. N., Kliewer, W., Allison, K. W., Erwin, E. H., Meyer, A. L.

- & Esposito, L. (2006). Peer and school problem in the lives of urban adolescents: Frequency, difficulty, and relation to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 169-190.
- Hamre, B. K. & Pianta, R. C. (2001). Early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trajectory of children's school outcomes through eighth grade. *Child Development, 72*(2), 625-638.
- Hester, P. (2002). What Teachers can do to prevent behavior problems in schools. *Preventing School Failure, 47*(1), 11-38.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ship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6), 1181-1197.
- Missall, K. N. (2002). Reconceptualizing early school adjustment: a search for intervening variables.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Reynolds, W. M. (1990).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ature,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School Psychology Review, 19*, 158-173.
- Roeser, R. W. and Eccles, J. S. (1998). Adolescents'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Relation to longitudinal changes in academic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1), 123-158.
- Rudolph, K. D., Hammen, C., Burge, D., Lindberg, N., Herzberg, D., & Daley, S., E. (2000). Toward an Interpersonal Life-Stress Model of Depression: The Developmental Context of Stress Gener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215 - 234.
- Simon-Morton, B. G. & Crump, A. D. (2003). Associ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ocial competence with school adjustment and engagement among sixth graders. *Journal of School Health, 73*(3), 121-126.
- Vieno, A., Santinello, M., Pastore, M., & Perkins, D. D. (2007).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in school, and self-efficacy as resources during early adolescence: an integrative mode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 177-190.
- Wentzel, K. R. (1999). Social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Commentary.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59-69.
- 원고접수일 : 2007. 11. 1.
게재결정일 : 2008. 1. 28.

A Validation Study of the School Adjustment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Kyu Mee, Lee

Ajou University

Myung Sig, Kim

Jeonju University

This study is to testify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chool adjustment scale (Lee, 2005) for 634 middle school students (boy: 479, girl: 155)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by simple correlation analysis of school adjustment scale with life-stress scale and depression scale (CES-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confirmed the fitness of the factor structure of the school adjustment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as 'medicore fit' (CFI=.993, NNFI=.985, RMSEA=.085). It was testified for its concept to be composed of 4 dimensions, schoolwork(study competence and value), school friends (friend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school teacher(teacher preference and intimacy), and school life(order & rule compliance and positive attitude to school life). Second, it was correlated significantly negatively with life stress scale and depression scale (CES-D), discriminant validity supported. The reliability (Cronbach α) of schoolwork (.83), school friends (.87), school teacher (.90), school life (.85), and total items (.93) in school adjustment scale was moderate or goo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Validation Study of School Adjustment Scale

부 록

※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칸에 ✓표를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2. 나는 학교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잘 익힐 수 있다				
3. 나는 하던 공부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한다				
4. 나는 수업시간에 하던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5. 나는 노력만 하면 지금보다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다				
6. 학교공부는 내가 성숙된 인간으로 커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7.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8.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 한다				
9. 학교에는 재미있는 친구가 많다				
10. 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11.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12. 나와 함께 놀아줄 학교친구가 있다				
13.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14.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협조를 잘 하려고 노력 한다				
15. 우리 반 친구가 학습준비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면 함께 사용 한다				
16. 나는 학교친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 한다				
17. 나는 반 친구가 이야기 할 때 잘 귀담아 듣는다				
18. 나에게서 고민을 나눌 학교친구가 있다				
19. 선생님들은 배울 점이 많다				
20. 선생님들은 대체로 학생들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 한다				
21.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22. 이번 학년에 만난 선생님들은 대체로 마음에 든다				
2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대체로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24. 우리학교에는 친구처럼 재미있는 선생님이 있다				

(계속)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25.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				
26.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				
27. 나는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 할 수 있다				
28. 우리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29. 나는 화장실이나 수도 등 학교시설을 아껴서 사용하려고 한다				
30.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지켜야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잘 지켜야 한다				
31. 나는 학교 안에서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32.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33. 나는 학교물건을 내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사용 한다				
34. 나는 학교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 한다				
35. 나는 주변활동을 열심히 한다				
36. 나는 요즘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쾌하다				
37. 나는 우리학교의 특별한 행사(소풍,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8. 나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